11

비만 성인에서의 체질량지수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과의 관계

김준수, 권우성, 김일회, 김석원, 이근미, 정승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비만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로 인한 모든 원인적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비만군에 속하는 성인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비만자체가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만 성인에서의 체질량지수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영남대학교 부속병원의 종합건진센터와 가정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 중에서 비만군에 속하는 163명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신장, 체중, 안정시 혈압(수축기와 확장기)을 측정하고 공복시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을 검사하였다. 체질량 지수의 증가에 따라 대상자를 3군으로 분류하였다(1군; 25.0 BMI<30.0, 2군; 30.0 BMI<35.0, 3군; BMI 35.0). 1군(25.0 BMI<30.0)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독립표본 t-test로 2군, 3군과의 차이를 각각 관찰하였다.

결과: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의 수치는 체질량지수(BMI)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나(각각 P<0.01), 총콜레스테롤, HDL & LDL-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비만한 성인에서 체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의 상승, 중성지방 수치의 증가, 그리고 공복시 혈당의 증가가 당뇨병으로 진단되지 않는 범위에서도 나타났다.

중심단어 : 비만, 체질량지수,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혈당